보다 커질 충남의 역할

하동만 | 전남발전연구원 원장

충남에서는 「한국의 중심, 강한충남」을 말한다. 사실 충남은 우리나라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보면 2009년 기준으로 도민 1인당 GRDP가 3만 652달러로 전국 16개 시 · 도중 울산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 황해의 우리나라 측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 「환황해경제권」시대 큰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이런 여러 요인들이 충남인들의 긍지이자, 자부심이 되고 나아가 발전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충남은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세계정상급 첨단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주변지역의 공공 및 민간부문 R&D 인프라는 타지역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수도권으로부터의 지속적인 기업유입과 세종시 건설 등에 따른 충남의 역동성도 타지역의 부러움의 대상이다.

서울에서 대구 · 부산을 가거나, 광주 · 목포를 가려면 반드시 지나쳐야 하는 곳이 충남이다. 중심지역의 특성은 문화의 융합과 인성의 온화함에 있다할 때, 충청인의 느긋함과 속내 깊음은 이런 지역적 배경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싶다. 충청도에 유관순, 윤봉길 같은 충절지사가 많은 것도 인간사를 길게 보고 결국 의로움이 이긴다는 지혜로움이 행동으로 옮겨 진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 민족의 영원한 영웅 이순신 장군은 한양에서 태어나 충남에서 성장하고 남해안에서 왜군을 물리쳐 백척간두의 나라를 지켜냈다. 이순신 장군이 이처럼 큰일을 이룬 그 바탕에는 가장 중요한 성장시절을 충절과 지혜의 고장 충청도에서 보낸데서 연유 할 것이고, 이를 기려 현충사가 충남에 자리 잡게 된 것이라 생각한다. 화합과 균형의 미덕이 갈수록 아쉽고, 그 중요성을 더하는 요즘, 충청남도에 거는 기대도 커질 수 밖에 없다.

대구 · 경북-대전 · 충남-광주 · 전남으로 이어지는 R&D 특구 및 과학 비즈니스벨트는 미래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첨단산업의 핵심 축이 될 것이다. 영남과 호남을 잇는 첨단과학기술벨트의 형성은 대전 · 충남의 중심적 역할이 있기에 가능했고, 성공가능성도 그만큼 크다 할 것이다. 특히 이 과학 비즈니스벨트는 전남 · 경남 · 부산 · 울산으로 이어지는 철강 · 조선 · 석유화학 · 자동차 등 남해안 전통산업의 발전을 R&D 협력을 통해 지원해주게 될 것이다. 첨단산업과 전통산업의 융합, 항공 우주산업발전을 위한 삼각벨트의 형성 등을 통해 미래 우리나

라 산업을 한단계 도약 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여기에서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개발년대 우리나라는 산업 · 금융은 물론 인프라건설, 인력양성, 기술개발이 중앙집중 개발방식에 의해 이루어졌다. 수도권 집중현상은 단기적인 비용절감과 손쉬운 능률확보 유인 때문에 집중화를 더욱 가속화 시켜, 오랫동안 우리 경제 · 사회 전반에 걸쳐 집중화의 역기능 문제를 제기 하고 있다. 그동안 충청권은 인접한 수도권으로부터의 기업이전에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아왔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현상은 계속 될 것이다. 이제 대전 · 충남은 축적된 산업역량을 남쪽으로 보다 많이 제공해 주어야 할 역할을 해야 할 것 이다.

유사 이래 충청과 호남은 밀접한 역사적 유대관계를 가져왔다. 고대 마한과 백제의 유적을 공유 하고 있으며 많은 인접지역에서 연계생활권을 유지해오고 있다. 이를 자산으로 백제 관련문화 행사와 연계 관광상품 개발 등을 통해 공동의 유산을 함께 활용해 나가는 노력이 더욱 강조되어야한다. 특히, 선사시대 유물로 전세계에 5만5천 여기, 한반도에 3만여기의 고인돌이 남아있는데 그중 전남에만 2만여기의 고인돌이 산재해있다. 남해안에서 계속 발견되고 있는 공룡유적지와 함께 고인돌, 영산강의 마한고분과 충남의 백제유적을 체계적으로 개발한다면 호남 · 충청권의 독특한 고대문화권을 재현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는 호남 · 충청의 협력을 고취시켜주는 자극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미래 강한 충남의 실현을 위해 정책개발에 여념이 없는 충남발전연구원이 금년으로 15년의 연륜을 쌓게 되었다. 충남의 역할이 커질수록 충남발전연구원의 책임도 그만큼 무거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제 · 산업 · 과학기술 · 전통문화 등 모든 부분에서 좁게는 충청과 호남이 넓게는 우리나라 모두가 화합과 협력의 전통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황해경제권 시대」에 함께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충남, 그리고 충남발전연구원의 더 큰 역할을 기대한다.